

20131026 진해청소년전당 개관식 축사

축사

풍요와 나눔이 가득한 절기에 청명한 기운을 담아 진해청소년전당을 개관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간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과 창원시의 노력이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이자 진해청소년전당의 관장인 원정스님을 비롯한 창원 지역 스님들이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열정을 모아 노력한 결과입니다. 또한 오늘이 있도록 물심으로 애써주신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때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바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물질적 풍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직 미완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욕망과 유혹에 무제한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올바르게 계도하고 육성하는 것의 소중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원정스님을 비롯한 창원지역 스님들이 일찍이 청소년 육성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이를 위하여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활발히 활동해온 것은 진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이곳 진해는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간성(干城)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벚꽃 축제'의 명성을 떨쳐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오고 싶어 하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간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해청소년전당이 개관하였으니 이곳은 지역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잊지 마시고 진해청소년전당이 이 지역, 아니 더 나아가 경남을 대표하는 청소년의 문화·수련 시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불보살의 보살피심과 앞으로의 건승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불기2557년 10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